



With
KAU
Webzine

Twenty one steps

하늘 아래 새내기들
하늘 높이 꿈꾸리라

새내기성공센터

목차 With KAU 함께 이루는 꿈

새내기성공센터 3중멘토 활동

2023 신입생 입학식 2

2022 재학생 멘토들의 멘토링 이야기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성언이와 아이들” 4
항공전자정보공학부 “Efg” 5
신소재공학과 “바라박바박” 6
소프트웨어학과 “우리의 청춘을 응원해” 7
스마트드론공학과 “페어링” 8
S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가보자! 자율로!” 9
공학계열 “마징가제트” 10
항공교통물류학부 “항공 아우름” 11
항공운항학과 “한” 12
경영학부 “왕가네 친구들” 13
자유전공학부 “자유의 항공” 14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추천 도서 소개

궁의 증명 : 최진영 15

3월 웹진 퀴즈 이벤트

With KAU 웹진 퀴즈 풀고, 리뷰를 남겨주세요 17

새내기성공센터 2023년 4월 일정

이달의 행사 일정 20



표지 [©한국관광공사 사진갤러리-이준혁] 저작권

[촬영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With KAU 웹진은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설렘과 긴장 가득한 첫걸음...

2023 신입생 입학식

2월 28일 2023학년도 한국항공대학교 입학식이 개최되었다. 식순은 ▲국민의례 ▲입학허가 선언 ▲학생 선발 경과보고 ▲신입생 선서 ▲신입생 장학증서 수여 ▲총장 환영사 ▲국토교통부장관 축하영상 ▲고양 특례시장 격려영상 ▲교가 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입학식은 대강당에서 11시부터 약 30분간 진행됐으며, 11시 35분부터는 학부(과)별로 장소를 이동해 학부(과)장 학부모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입학식이 시작되었다. 올해 한국항공대학교의 신입생 선발전형에서는 일반전형 269명, 논술우수자전형 203명, 교과성적우수자전형 195명 등 총 935명을 선발하였다. 신입생 선서는 신입생 대표 공과대학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김상현 학우, 시융합대학 스마트드론공학과 김혜원 학우, 환경대학 항공운항학과 장준혁 학우가 대표로 진행하였다. 신입생 선서 내용은 '우리는 한국항공대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으로 입학함에 있어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열심히 학업을 연마하여 한국항공대학교 학생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이다.

이후 장학증서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공과대학 수석 장학금 수여대상자로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김상현 학우가 선정되었고, 시융합대학 수석 장학금 수여대상자로는 스마트드론공학과 김혜원 학우, 그리고 전체 수석으로는 항공운항학과 장준혁 학우가 선정되었다. 단과대학 수석은 각 학장이 수여하였고, 전체수석은 총장이 직접 수여하였다.

다음 순서는 허희영 총장의 신입생들을 위한 대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길 바라며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내용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과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의 신입생들을 위한 격려영상도 차례대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한국항공대학교의 교가를 오케스트라 동아리인 KAUAO[카우아오]와 함께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신입생 및 재학생, 학부모까지 제창하며 본행사 입학식이 종료되었다.



전체수석이었던 항공운항학과 장준혁 학우는 “사회로의 첫 발을 뗄 만큼 긴장되면서도 앞으로가 기대되며, 파일럿의 꿈을 가졌던 만큼 원하는 과에 입학하여 앞으로의 대학생활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의 목표를 묻는 질문에 "mpc과정에 지원해 멋진 군조종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로는 "지금까지 걱정도 많이 하시면서도 끝까지 믿고 지원해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다사다난했지만 결국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으니 멋진 파일럿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전했다.

입학식을 마친 후에는 과별로 각각 대강당, 비전홀, 강의동 교실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학부모 간담회에서는 각 과 교수들이 커리큘럼과 함께 학과 프로그램 등과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성언이와 아이들”

‘성언이와 아이들’은 멘티들이 멘토를 보고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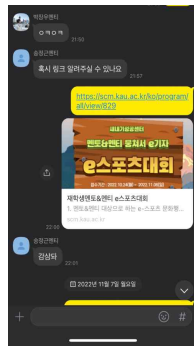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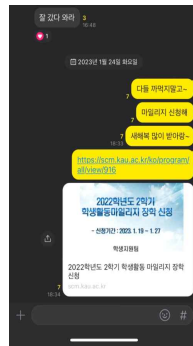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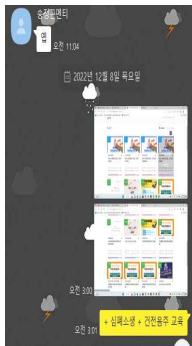
우리활동.



9월



12월



팀명 활동목적

▣ 성언이와 아이들

- ☆ 학교 혹은 인생 선배로서 많은 조언을 통해 학교생활의 자신감을 느끼기 위함
- ☆ 멘토와 멘티 혹은 멘티들 사이에서 우애를 형성하여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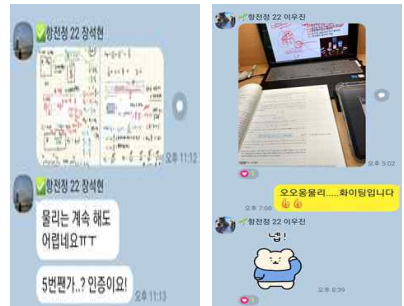
참여소감

- ▣ 멘토 : 멘토링 하면서 가장 걱정되었던 부분은 참여도였습니다. 다행히도 멘티들이 제가 부탁하거나, 해야할 것들을 안내하고 설명해주었을 때, 모두가 긍정적으로 참여함에 고맙습니다. 그에 따라 저도 최대한 멘티들에게 많은 도움을 얻도록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멘토링을 통한 인연으로 앞으로도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멘티들이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해 응원합니다.
- ▣ 멘티 :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학생활에 어떻게 적응할지 막막했지만 멘토링에 참여하며 대학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항공전자정보공학부 “Efg”

Efg는 읽었을 때 E 예쁘지와 발음이 비슷해서 팀명으로 정해졌습니다. 항전정 E반으로만 뭉쳐져 있는 우리 팀의 멘티들이 1년동안 아름다운 추억을 쌓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팀명을 정하였습니다.

우리활동.



[

9월

12월

]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 Efg

- ☆ 대학교에서 생활을 하는 기간 중에 가장 즐거운 추억 만들기
- ☆ 새내기들의 탄탄한 미래를 위한 1년 동안 대학 생활 마스터 시키기

- 멘토 : 1년동안 멘티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지도교수 간담회와 전문가 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을 참여하였습니다. 덕분에 저 또한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진로를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멘티 : 좋았던 점은 대학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생기는 막막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항공대에서 진행하는 여러 활동들을 친절히 알려준 점과 친하지 않은 동기들과 처음 안면을 틀 수 있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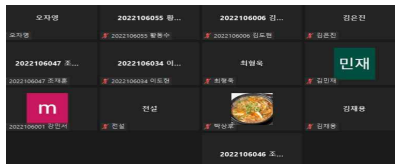
신소재공학과 “바라박바박”

멘토(바라박바박)과 함께 박박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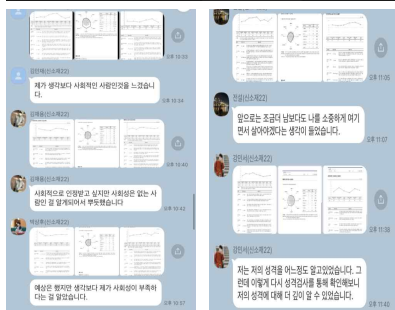
우리활동.



9월



12월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 바라박바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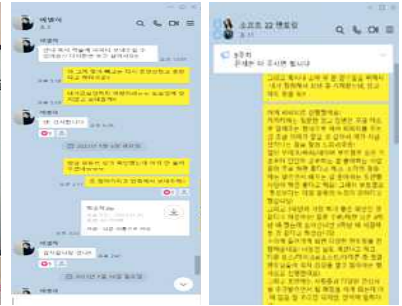
- ☆ 후회없이 1학년 생활 마무리하기
- ☆ 다양한 활동을 통한 멘토 멘티간의 우애 형성

- ▣ 멘토 : 멘토링 활동을 하며 새내기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내기들에게 줄 학과 정보나 학과 공지 사항들을 찾아보고, 새내기들과 활동을 하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를 자주 드나드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활동을 하며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 ▣ 멘티 : 1년 동안 멘토멘티 활동을 하면서 학업과 학교생활에 관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학년 초에 단톡방을 만들어서 미리 소통하고 미리 친목을 다졌던 것은 1년 동안 학교생활을 하는 데 큰 발판이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학과 “우리의 청춘을 응원해”

서로의 청춘에 있어서 같이 응원하고,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자는 의미

우리활동.



]

9월

]

]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 우리의 청춘을 응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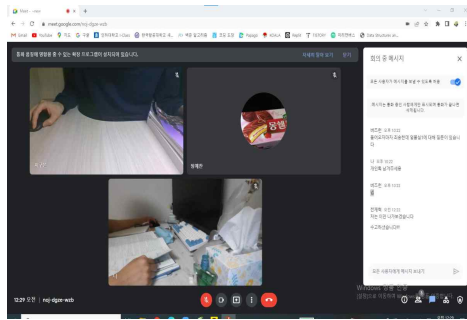
- ☆ 새내기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위하여 시간관리 노하우 전수
- ☆ 다양한 활동을 통한 멘토 멘티간의 우애 형성

- ▣ 멘토 : 친구들의 소감문을 보고 정말 눈물 날 뻔했습니다. 친구들이 너무 잘 따라와줘서 고맙습니다. 친구들 특성에 맞게 노선을 통해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설명하고 나중에도 볼 수 있도록 메모해 두려고 노력하였고, 친구들이 확인하고 계속 여러 활동들에 참여한 것을 인증해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 ▣ 멘티 : 한 학기 동안 멘토 멘티 활동으로 멘티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학기 중에는 매주 좋은 자료들 공유해주시고 질문받아주셔서 너무나도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멘티들끼리 더 친해질 수 있도록 종종 자리를 마련해주신 것도 감사해요 ㅎㅎ

스마트드론공학과 “페어링”

서로 친해지면서 이어지자는 의미에서 페어링으로 함

우리활동.



9월



12월

팀명
활동목적

▣ 페어링

- ☆ 앞서가는 새내기가 되기
- ☆ 언제나 의지가 될 수 있는 멘토멘티가 되어보기

- ▣ 멘토 : 멘티들에게 팁들을 알려주면서 멘티들이 학교를 잘 적응해나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리고 멘티들의 질문을 들어주고 해답을 같이 찾아가면서 다 함께 성장할 수 있어서 좋았다. 많은 배움을 얻은 멘토링이었다.
- ▣ 멘티 : 학교를 적응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모르는 점들을 멘토에게 물어볼 수 있어서 학교를 다니다면서 답답함이 많이 해소되었다.
- ▣ 멘티 : 멘토멘티 활동을 통해 한국항공대학교에서 해야하는 것 그렇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선배의 도움으로 해야 할 것을 더 잘 알게되었습니다.

참여소감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가보자! 자율로!”

자율 주행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첫걸음

우리활동.



]

9월

12월

]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 가보자! 자율로!

☆ 어느정도 적응한 학교 생활을 보다 완벽하게 해낼 수 있도록 배워가는 과정을 밟아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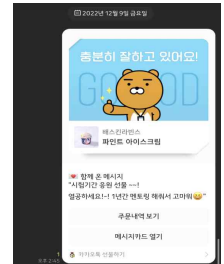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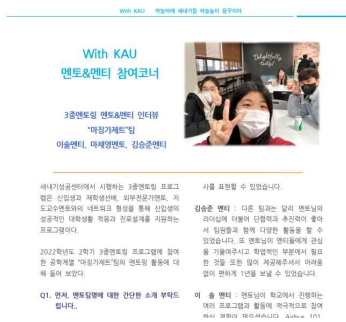
▣ 멘토 : 새로운 시작을 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무척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많이 친해져서 보기 좋았고, 앞으로도 멘토로 새로 들어올 1학년들에게 좋은 선배가 되어주길 바란다.

▣ 멘티 : 앞으로 2학년에 대한 계획이나 군입대 등 다양한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져서 좋았고, 앞으로도 잘 지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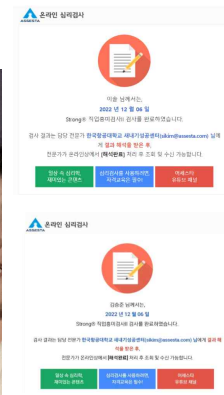
공학계열 “마징가제트”

새내기들을 지켜내는 마채영 멘토의 성을 따서 지음.

우리활동.



9월



12월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 마징가제트

- ☆ 학교 시설 안내, 시간관리 노하우, 과목 공부법 등을 알려줌.
- ☆ 다양한 활동을 통한 멘토 멘티간의 우애 형성

▣ 멘토 : “가르치는 것은 2번 배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멘티 친구들에게 교내시설탐방, 학교 생활 안내를 하기 위해 다시 자료를 찾아보며 더욱 슬기롭게 대학 생활을 보낼 방법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또한 전자공학전공 지도교수님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자공학 기술 패러다임에 대해 넓게 알아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 멘티 : 따뜻한 멘토님을 만나서 책과 솔루션, 족보 등 공부에 도움되는 많은 것들과 참여는 많이 못했지만 다같이 모여서 놀기 등 재밌는 활동을 많이 기획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학기 재밌게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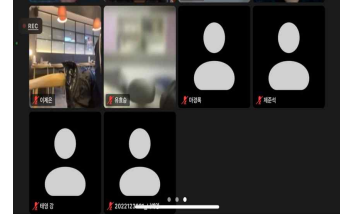
항공교통물류학부 “항공 아우름”

항공 아우름은 모두 다른 특성을 가진 22학번 멘티들과 21학번 멘토가 한 팀으로 잘 아우러지고자 지은 팀명입니다.

우리활동.

]

9월



12월



]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 항공 아우름

- ☆ 다양한 비교과 활동 노하우 전수
- ☆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을 위한 연합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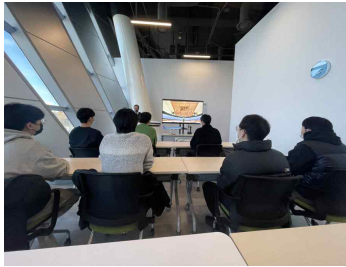
- ▣ 멘토 : 1년간 좋은 인연을 만나 신뢰를 쌓고 서로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저도 멘티들에게 배울점이 많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 ▣ 멘티 : 멘토님이 좋은 선배들도 많이 소개시켜주시고 서울 생활도 도와주셔서 행복했습니다, 또한 편안하게 다 잘 지낼 수 있도록 활발하고 재밌는 활동들로 구성해주셔서 재밌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 멘티 : 너무 친한 선배를 얻을 수 있어 너무 행복했고 비록 멘토링 활동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공운항학과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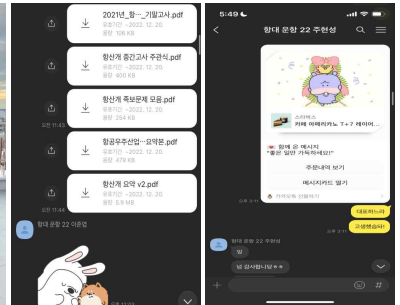
항공업계는 경쟁이 아닌 함께 발전해 나가는 관계입니다. 새내기들이 치열했던 수험생활과 달리 대학교에서 또 운항학과에서 경쟁보다는 ‘한 팀’ 이라는 마음으로 함께했으면 한다는 뜻과 힘든 수험생활의 ‘한’을 풀며 즐거운 새내기 생활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우리활동.

8월



12월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한

- ☆ 많은 활동 속 동기끼리의 친밀감 형성, 유지
- ☆ 서로를 배려하고 나누며 함께 발전하려는 태도 형성

▫ 멘토 : e스포츠 대회, 축구장 직관, 명랑운동회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 하였으나 시간이 맞지않아 참석하지 못하는 멘티들이 많아 아쉬움이 큼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된다면 편하게 모이는 시간을 또 가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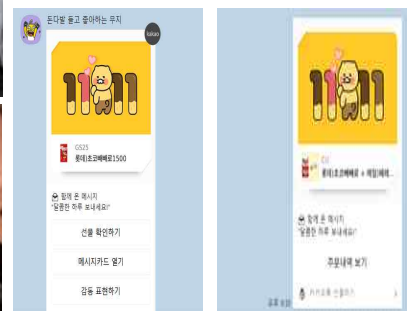
▫ 멘티 : 많이 참여는 못했지만 대학교 입학 이후로 멘토링 덕분에 친해진 동기, 선배들도 있었고 학과 공부와 직업상 중요한 덕목인 협동심을 키우려 단합활동 또한 많이 수행했다. 그리고 멘티 한 명 한 명 역할을 도맡아 책임지고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경영학부 “왕가네 친구들”

왕가네 친구들은 멘토의 성이 왕씨인 점에 착안해 드라마 제목인 ‘왕가네 식구들’을 변형했다. 또한, 팀명에는 멘토와 멘티가 서로 친구처럼 지내자는 의미가 있다.

우리활동.

9월



12월



팀명
활동목적

▫ 왕가네 친구들

☆ 마지막 학기인 만큼 대학생활 동안 배운 내용과 꿀팁 등을 모두 공유해 멘티들이 의미 있는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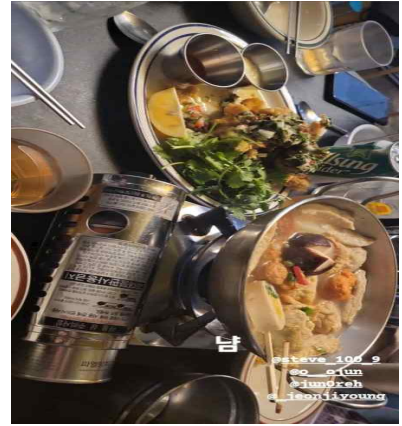
참여소감

▫ 멘토 : 인턴 생활을 하면서 멘토링 활동을 병행하다 보니 1학기 때처럼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특히, 2학기 때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실천하지 못해 많이 아쉬웠습니다. 자주 만나지 못해 멘티 친구들에게 큰 도움은 주지 못했지만, 중간중간 꾸준히 연락했기에 필요한 점을 채워주고, 해결할 수 있던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멘티 : 1년 동안 멘토링 활동 덕분에 학교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생활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 선배님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새내기 시절 멘토링 활동이 없었다면 수월하게 학교 생활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유전공학부 “자유의 항공”
자유전공학부 + 항공대 의미입니다.

우리활동.



9월

주문일 2023.01.19 23:18:48

to. 문준영 (자전22) 상세보기 >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1만원권
10,000원
수량 1개

주문일 2023.01.15 22:36:01

to. 전지영 (자전22) 상세보기 >

투샘플레이스
카페라떼 (R) 2잔
10,000원
수량 1개

주문일 2023.01.26 13:10:28

to. 나 상세보기 >

스타벅스
골드 브루 T+바닐라 크림 골드 브루 T
10,700원
수량 1개

12월

주문일 2023.01.19 22:17:21

to. 이준호 (자전22) 상세보기 >

맥도날드
디지털 상품권 1만원권
10,000원
수량 1개

주문일 2023.01.15 18:17:09

to. 최지현 (자전22) 상세보기 >

스타벅스
카페 아메리카노 T+7 레이어 가나슈 케이크
10,200원
수량 1개

주문일 2023.01.25 19:06:06

to. 권오준 (자전22) 상세보기 >

프렌즈인원/미규어
[섭션됨] "귀여움의 정석" 춘식이 베이비필로우
9,900원
수량 1개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 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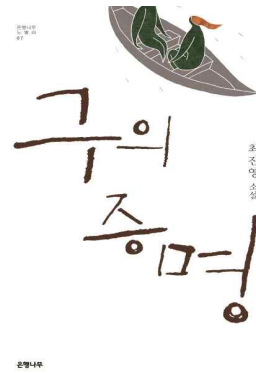
- ☆ 학교생활에 대한 많은 정보와 도움을 주고자 한다
- ☆ 멘토링을 통해 원만한 교우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 멘토 : 1년 동안 멘티들을 통해 후배들도 많이 알게 되어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부족했지만 불평 없이 잘 따라와준 멘티들에게 고맙고 선배로서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뿌듯한 활동이었습니다. 또한 역량 관리 시스템에서 매우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된다는 것을 알게되어 앞으로 활발히 참여할 예정입니다.
- 멘티 : 멘토님께서 학습 질문이나 학교 생활 관련 질문을 언제든지 빠르게 회신해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새내기성공센터에서 멘토와 멘티가 함께할 수 있는 외부활동들도 많이 기획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추천 도서 소개

만약 네가 먼저 죽는다면
나는 너를 먹을 거야.
그래야 너 없이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어.

사랑 후 남겨진 것들에 관한 송고할 만큼
아름다운 이야기



2006년 계간《실천문학》으로 등단한 뒤 2010년 《당신 옆을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은》으로 한겨레문학상을 수상한 최진영의 소설 《구의 증명》이 은행나무에서 출간되었다. 이 작품은 3~4백매 분량의 중편소설 시리즈로 한국문학의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있는 ‘은행나무 노벨라’ 일곱 번째 수록 작품이다. 최진영 소설 《구의 증명》은 사랑하는 연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겪게 되는 상실과 애도의 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 혹은 죽음의 의미를 되묻는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최진영은 퇴색하지 않는 사랑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아름다운 문장과 감성적이며 애절한 감수성을 통해 젊고 아름다운 남녀의 열정적인 사랑과 냉정한 죽음에 대해 세련된 감성과 탁월한 문체로 담아내고 있다.

상상을 가능케 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가능케 하는 상상.

여자와 남자가 등장한다. 관형사 ‘한’이 아닌 대명사 ‘이’ 사람일 수밖에 없는 관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걸 운명이라 말할 수도 있겠고, 대수롭지 않게 연인이라고 잘라 말할 수도 있겠으나 소설에서의 두 주인공 ‘구(남자)’와 ‘담(여자)’은 그 낱말의 범위에서 조금은 이탈해 보인다. 그들은 회문(回文)처럼 영원히 같이 붙어 원의 둘레를 순환할 수밖에 없는 관계. 타인이 만들어낸 우연과 엇갈림 등속을 겪지만 삶의 곡선 위에 놓인 두 개의 점은 궤도가 같기에 그들의 운명 또한 같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든 만나게 된다.

누구는 그런 관계를 지독하다 할지 모르고 또 누구는 완전한 사랑이라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비극은 이럴 때에 급작스럽게 그들 위에 놓인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거부될 수 없는 삶의 끝. 소설은 그런 비극 위에서 시작된다.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꺼져 버린 사랑을 재확인하면서.

길바닥에 죽어 있는 구의 옆에 앉아 말을 건네는 담의 낮은 목소리에는 비통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텅 빈 고독이 스며 있다. 또 초점을 잃은 시선은 현실이 아닌 비현실의 풍경을 바라보는 듯하다. 그런 와중에 그녀는 먹는다. 죽은 자의 신체의 일부를 조금씩 먹기 시작한다. 파격인가. 먹는다든 결과보다는 왜 먹을 수밖에 없는가, 라는 원인에 주목한다. 지금 그녀에게 현재는 죽음이다. 그러니 더더욱 과거에 집중할 수밖에. 죽은 자들은 심장이 멈추고 얼마 동안 청각이 살아 있다고 했던가. 그녀가 죽은 남자에게 속삭인다. 사람이란 뭘까, 나는 흉악범인가 혹은 사이코인가 아니면 마귀, 야만인, 식인종? 나는 누구인가. 그 어떤 범주에도 자신을 완전히 집어 넣을 수 없다고 죽은 자의 귀에 대고 속삭인다. 단지, 너를, 당신을 먹을 뿐이다.

소설은 현재를 말하고 있으나 이미 연인의 죽음으로 시간은 정지되었고, 화자인 그녀가 독백하는 모든 것은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한 지난 시간이 지금의 그녀 머릿속의 전부다. 소설은 천천히 그와 그녀의 과거로 돌아간다. 먹으면서 과거

속에 머문다. 그를 먹는 것은 그의 시간을 먹는 것이고 그들의 과거를 통째로 삼키는 일일 것이다. 제의. 죽은 자에게 남아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예의. 그녀는 그를 먹음으로써 제의한다. 비극이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비극 그것은 어떤 본질에 가 닿아 있는 무엇이다. 그럼으로 그녀는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이 제의를 믿을 수밖에 없다. 고로 완전히 자신의 몸속에 그를 씹어 넘긴다. 그래야만 그는 죽지 않고 그녀 안에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사랑이라고 부를 수밖에.

이 지독함 또한 사랑이리라. 누군가의 삶 한가운데 그런 사랑이 놓인다. 삶의 원심력이 그들을 튕겨내지 못한다. 그들은 중심 한가운데 오롯이 있다. 비극적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욕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 어쩌면 우리 곁에 있고 보통의 사랑을 하고 보통의 삶을 살아갈법한 구와 담인지도 모른다. 이 소설은 특별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많이 봐왔고 많이 경험했던 바로 그 사랑에 다름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현실에서 생명이 꺼지고 그후의 우리들의 표정을 상상한다.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상실에 대해. 남겨진다는 것에 대해.

◆ 작가의 말

나는 사랑하면서도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글을 쓰는 순간에도 '글을 쓰고 싶다' 생각하고, 분명 살아 있으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버린다. 그러니 나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알 수 없지만, 사랑하고 쓴다는 것은 지금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살다보면 그보다 좋은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르지만, 더 좋은 것 따위, 되도록 오랫동안 모른 채 살고 싶다.

With KAU 3월 웹진 퀴즈 EVENT

Q. 우리대학교 복수전공과 부전공 최소 이수학점 요건 중 옳바른 것은?

- ① 복수전공 39학점, 부전공 20학점
- ② 복수전공 40학점, 부전공 21학점
- ③ 복수전공 41학점, 부전공 23학점
- ④ 복수전공 42학점, 부전공 24학점

참여방법

메일송부 (kaussc@kau.ac.kr)
인적사항은 학번+성명+핸드폰번호

응모기간

2023.03.22 ~ 2023.03.21

당첨자선물

정답자 추첨하여 소정의 기프티콘 발송

당첨자발표

With KAU 22호

With KAU 2월 웹진 퀴즈 EVENT 당첨자

A. 1학년과정 이상 수료 재학생

2023****54 정○철

2021****76 이○연

2023****48 박○현

2023****57 성○비

2023****54 박○석



※ 제출한 핸드폰 번호로 기프티콘 발송

With KAU

멘토&멘티 참여코너

With KAU 웹진에 멘토&멘티가 참여하는 코너를 신설하였습니다.
3중멘토링인터뷰, 도전 백주부, KAU 백일장 코너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수록해주세요

코너명	코너소개	참여선물
멘토&멘티 인터뷰	월별 3중멘토링 활동에 대한 인터뷰를 합니다. 신청하신 멘토 또는 멘티에게 센터의 전문멘토가 취재하여 활동내용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도서상품권 (5만원)
도전 백주부	시기에 맞는 요리 및 레시피를 소개해 주세요	
KAU백일장	월별 멘토&멘티가 직접 쓴 독서감상문, 여행기, 수필 등 자유로운 내용을 소개합니다. "내용, 주제 자유"	

응모방법 : kaussc@kau.ac.kr

문의전화 : 새내기성공센터 02-300-0250~1



2023년 4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lan	Plan	Plan	Plan	Plan	Plan	1 Plan
2 Plan	3 Plan	4 Plan	5 Plan	6 Plan	7 Plan	8 Plan
←-----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탐색 프로그램 상시진행 -----→ 2023흥미진진 프로그램 (STRON직업흥미)						
9 Plan	10 Plan	11 Plan	12 Plan	13 Plan	14 Plan	15 Plan
←-----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탐색 프로그램 상시진행 -----→						
16 Plan	17 Plan	18 Plan	19 Plan	20 Plan	21 Plan	22 Plan
←-----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탐색 프로그램 상시진행 -----→						
23 Plan	24 Plan	25 Plan	26	27	28	29 Plan
30						



[새내기성공센터 유튜브 채널]

Follow

us:

<http://fsc.kau.ac.kr>

**now
ONLINE**



**KOREA AEROSPACE UNIVERSITY
FIRST YEAR SUCCESS CENTER**

